

인쇄하기

인쇄하기

창닫기



HOME 지역뉴스 전북

진안경찰-진안군 진안초 스쿨존 "차 없는 거리" 시행 주민 호평

김정호 기자

승인 2017.08.23 14:47



▲ 차 없는 거리 홍보

[업코리아] 진안경찰서와 진안군에서는 지난 21일부터 평일 등교시간대인 07시30분부터 09시까지 진안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"차 없는 거리"로 지정·시행했다고 밝혔다.

진안경찰서에서는 시행 전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학교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,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개최 통과 된 후 일부 반대하는

주민들의 이해를 구해 어린이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[어린이보호구역]을 “차 없는 거리”로 시행하게 됐으며,

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“차 없는 거리” 시행으로 우려됐던 주민 불편과 혼란 없이 원활한 차량 소통을 보이고 있어, 시행 전 반대했던 주민들도 “차 없는 거리” 만들기를 잘 한 거 같다며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게 돼 마음이 놓인다며 앞으로 “차 없는 거리”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.

김정호 기자 xnet1004@naver.com

<저작권자 © 업코리아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인쇄하기